인도 불교계 '위빠사나' 논쟁

찬 부처님시대부터 수행법 … 일부서 폄하

반 채식·비폭력 강조… '불교의 힌두化' 우려

◇인도 마하슈트라주 뿌네시에 소재한 TBMSG(삼계의 불자들을 돕는 모임) 법당에서 불자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인도 불교계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위빠사나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달리뜨 보이스(Dalit Voice)'라는 잡지가 지난해 '불교에 관한 논쟁'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많은 불교계 인사들과 독자들을 논쟁에 참여시키면서부터였다. 지면을 통해 논의된 많은 논점들 중 유독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문제가 특히 첨예한 찬반 양론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부처님 시대부터 불교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온 위빠사나가 이제 와서 새삼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핏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인도 불교의 특수한 상황아래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법도 하다. 현재의 인도 불교는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에 의한 '불가촉천민'들의 집단 개종에 의해 재기했으며, 불교도의 절대 다수는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하층민들이다. 때문에 힌두교도가 장악하고 있는 기존 사회체제에 반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힌두교가 인도의 종교전통을 내세워 불교세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위빠사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엔까(S. N. Goenka)의 '힌두화된 위빠사나 수행'을 지적한다. 고엔까는 브라만들의 전통인 채식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비폭력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도 불교의 사회개혁적 성향을 흐리고 있으며 나아가 '불교의 힌두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위빠사나 수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인도의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위빠사나 수행을 대중들에게 전파시키기에는 때가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이들은 위빠사나가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온 불교인의 바른 수행인 것이 명백한 마당에 일부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위빠사나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엔까가 위빠사나를 힌두교 전통에 뿌리를 둔 수행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찍이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을 전수하여 인도에 재도입하고 전파한 고엔까의 공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위빠사나를 직접 체험한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위빠사나 수행을 불교 수행법으로 전파하자는 입장이다.

위빠사나 논쟁은 많은 관심을 모으며 현재까지도 '달리뜨 보이스'에서 진행 중이며,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보이스 오브 붓다(Voice of Buddha)', '쁘라붓다 자가뜨(Prabuddha Jagat)' 등 불교지들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달리뜨 보이스'는 불교 전문지는 아니지만, 발행인 겸 편집인이 잘 알려진 불자이고, 평소에도 소수 종교에 대한 기사를 자주 다루어서 많은 불자들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싱가포르 '가짜승려' 골머리

올들어 16명 구속, 액막이 齋·占등 사기

싱가포르 경찰 당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가짜 승려의 증가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영문판 '선데이 타임즈'가 17일자로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두달 반동안 16명의 남녀 가짜 승려들이 당국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는 지난 한 해동안 같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와 같다고 한다.

또한 이 신문은 구속된 이들 대부분이 싱가포르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불교 연합' 대변인은 "이들 가짜 승려들은 자신들이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왔다고 말하며, 액을 막는 재(齋)를 올리거나 점을 쳐주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 라마 '첫 손'

2위 교황, 3위 만델라

獨잡지, 현인 설문조사

독일인들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사진)가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독일 잡지 '게오 비센' 최신호는 현존 인물중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고르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33%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14%가 교황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와 교황에 이어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12%의 지지를 얻어 현자 순위 3위에 올랐으며, 4위는 11%의 지지를 얻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는 30%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마하트마 간디(25%), 테레사 수녀(18%), 알버트 슈바이처(11%)등이 선정했다.

해외불서

•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라= 행복에 관한 저자 타로 골드(Taro Gold)의 생각들을 석가, 공자, 노자 등의 말을 곳곳에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 저자는 마음이 실재를 창조하고 행복이 상상력을 형성하며, 무아(無我, Openness)가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이미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미국 Andrews & McMeel 출판사 펴냄.

• 티베트 밀교의 성취비법= 티베트불교 닝마파의 경전인 〈반야심경〉〈보현행원찬〉 등을 티베트어 원문과 발음을 표기, 일본어와 병행해 해설하고 있다. 원문은 닝마파의 총본산인 민도르링의 활불(活佛)인 고쿠티엔 림포체가 몸소 편집했다. 번역은 해설 이외에도 한역과 티베트어를 대비해 실제 법당에서의 작법(作法) 등을 삽입, 학문적이면서도 알기 쉽다. 다나까 코우메이(田中公明) 번역, 일본 대법륜각 발행.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의 한글학교 중급반 담임 박혜자(오른쪽)선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국사랑·불교 함께 배워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 한글학교운영 … 모국어교육 2세 포교

한마음선원 캐나다 토론토지원(지원장 청각스님)이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캐나다 이민 2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는 모국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불교도 공부하게 해 정체성을 가진 불자 교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만4세 이하의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10명이하의 유아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이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과 학생법회 1시간, 외국인이 도와주는 숙제시간 1시간 30분, 문화시간 30분이 포함돼 불교공부도 하고 오락도 배우며, 숙제도 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글학교 지도법사인 청동 스님은 "약 3년전부터 한글학교를 열어 오던중 지난해 여름부터 본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정식 한글학교로 재편성이 되었다"며, "자라나는 2세들을 교육시켜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참된 불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6. 마트리체타 존자와 가패

불교사에서 가패(歌唄)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 찬탄하는 의례는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가패란 원래 범어 파타(pāṭha)의 역어로서 찬송, 찬탄을 의미하며 여러 대승경전에 그 종교적, 예술적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법화경〉의 "가패로서 부처님의 덕을 찬송하여 작은 음성으로서도 모두 불도를 이루게 되며"라는 구절은 범패라는 불교예술의 원형적 지평을 확인해준다.

한국불교에서 가패는 즉 범패이다. 현재 불교교단에서 행해진 가패의례의 오랜 기원은 문헌상으로 서기 2세기의 인도 나란다사원대학까지 올라간다.

저명한 역경삼장(譯經三藏), 의정(635~713)은 671년부터 695년에 이르는 25년 동안 인도와 수마트라 등지에서 구법활동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환한다. 의정은 율장의 역출에 노력하여 중국불교사에 가장 많은 율장을 번역한 삼장이었으며, 당시 인도불교학의 중심지였던 나란다사원대학에서 10년간 수학한 학승답게 대승불교에 정통한 인물이다.

150 찬불송 지은 불교시인

부처님 지혜·공덕 기려

의정 삼장은 711년, 무착, 세친과 같은 대논사들 조차도 존경해마지 않았던 불교시인 마트리체타(摩呾里制吒)가 쓴 〈일백오십찬불송〉을 한역하고 있다. 본서는 의정 삼장이 684년 나란다사원대학에서 이미 번역하였다가 711년 다시 중철(重綴)하여 펴낸 것이라고 전하며, 이 책에서는 의정 자신이 당시 유학한 나란다사원대학에서 행해지던 가패 의례를 잘 전해주고 있으며 2세기경 활동했던 저명한 불교시인 마트리체타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 한역은 물론 범본과 티베트역이 현존하는 〈일백오십찬불송〉의 저자로서 마트리체타의 명성은 의정 삼장이 나란다사원대학에 유학중일 때까지도 드높아서 의정은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나의 번역으로 읽는다. "예불할 때에는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되 음성을 합하여 길게 찬탄한다. 혹 10송, 20송이 있는데 이것이 그 법이다. 또한 여래 등의 패(唄)는 원래 찬불(讚佛)이다. 음운(音韻)을 길게 뽑아 찬탄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비록 알기 어렵지만 혹 고요한 밤에 들으면 대중들이 처연(悽然)히 여긴다. 찬송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백오십찬(一百五十讚)〉이나 〈사백찬(四百讚)〉 혹은 다른 찬송을 외우게 하는데 이는 진실로 아름답다. 그러므로 서국(西國)의 예경(禮敬)에는 찬탄이 성대히 전해진다. 단지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세존께 예경하는 찬탄을 칭설(稱說)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존자(尊者) 마트리체타는 서방의 굉재(宏才), 석덕(碩德)으로 으뜸가는 분이어서 무리 중에 빼어난 분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옛날 부처님께서 재세하실 때, 부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인세에 유행(遊行)하셨다. 그때 앵무새가 부처님의 상호가 장엄하여 황금빛 산과 같은 것을 보고 숲속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으로 찬영(讚詠)하였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새는 나를 보고 환희하여 자신도 모르게 슬피우는구나. 이 복을 말미암아 내가 열반한 뒤에 인신(人身)을 얻어서 이름을 마트리체타라고 하며 널리 나의 실덕(實德)을 찬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처음 외도에 출가하여 대자재천을 섬기며 이미 존경하는 바를 찬영하다 후에 기명(記名)되어 있는 바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을 받들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였다. 널리 찬탄을 일으켜서 전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수승한 가르침을 따르되 스스로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뵙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다만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상(遺像)을 받들어 예볼하여 우러러 찬불공덕의 수기(授記)를 받았다. 처음에는 〈사백찬〉을 쓰고 이어서 〈일백오십찬〉을 지었으니 모두 6바라밀을 설하여 불세존께서 지니신 수승한 공덕을 밝히는 글이었다. 이 글에 담긴 생각은 가히 완려(婉麗)하여 하늘의 신들도 함께 부를 정도였다.(중략)"

이처럼 의정은 자신이 수학하던 나란다사원대학의 찬불송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으며 본 〈일백오십찬불송〉을 지은 마트리체타의 저명함을 보고하고 있다. 〈일백오십찬불송〉을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기리며 한 줄 한 줄 소리 내어 읽는다면 마트리체타 존자의 순수하고 열성적인 신심에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 경학회 회주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신간!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족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